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②
11. ②	12. ①	13. ①	14. ③	15. ⑤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③	24. ⑤	25. ⑤	26. ②	27. ①	28. ④	29. ④	30. ①
31. ④	32. ④	33. ⑤	34. ⑤	35. ③	36. ②	37. ①	38. ④	39. ②	40. ①
41. ①	42. ①	43. ④	44. ①	45. ②					

[1~5] 화법

[1~2]

1. 말하기 과정 분석

정답해설 : 지호는 ㉠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특강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승우와 자신의 공통된 경험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특강에서 들은 말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지호는 승우에게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지를 직접 묻고 있다. ② ㉠에서 지호는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승우의 말을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③ ㉠에서 지호는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라는 발언을 통해, 승우에 대한 상황 추측이 반장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에서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등을 통해 지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학생’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으나 경희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것과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강사가 특강에서 소개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 중 ‘희소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라고 하였으므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은 경희루 내부 특별 관람이 한시적이며 소수 인원만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람을 결심하게 되었으므로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나,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위해 관람을 결심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은 '희소성'과 관련된 설명이므로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추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5]

3. 협상 내용 파악

정답해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제시된 협상 상황 설명과 B의 일곱째 발화, A의 여덟째 발화를 통해,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A 마을과 B 마을이 축제를 공동 개최한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협상 중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한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고 축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첫째 발화에서, '축제 공식 명칭'을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이번 협상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넷째 발화에 따르면, A는 B 마을이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협상 전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A의 다섯째 발화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일곱째 발화에서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A는 일곱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을 '50%를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통해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제안을 이끌어냈음을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응한 B의 여덟째 발화를 살펴보면, B가 자신이 제안했던 행사 배분 비율을 낮추는 대신 행사 선택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A의 셋째, 일곱째, 여덟째 발화에서, 축제 공동 개최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이나 행사 배분 비율에 대한 요구, 단독 개최 추진에 대한 의사 등의 상대방 의견이 적절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의 여덟째 발화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언급한 것을 통해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제 타결의 시급함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의 질문은 연쇄적인 방식을 활용한 것이 아니며, 축제 공식 명칭에 마을 이름을 표기하는 순서와 행사 배분 비율에 관한 갈등은 있으나 그 갈등 상황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의 다섯째 발화에서 마을 지도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나, 그와 관련된 설명이나 감정에 호소한 내용은 없으며, 상대방의 무조건 양보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⑤ A의 여덟째 발화에서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라고 하여 가정적 진술은 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이다.

5. 협상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A의 다섯째 발화와 B의 여섯째 발화에서 A 마을은 인지도 향상, B 마을은 경제적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다섯째 발화부터 B의 여섯째 발화까지에 이르는 협상 내용에서, 축제 명칭에 A 마을 이름을 앞세우기로 한 것은 A 마을의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속하며, A의 여섯째 발화부터 이후의 협상 내용에서, B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고 B 마을부터 행사 선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B 마을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과 관련된 방안이 도출되었으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B의 둘째 발화에서 B는 자신들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말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양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의 셋째 발화에서,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A 역시 상대방이 양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B는 여덟째 발화에서 행사 배분 비율을 양보하고 있으나, A는 둘째 발화에서 제안한 축제 명칭에 대한 요구를 이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양보하지 않는 대신 다른 조건에 대해 양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행사 선택의 순서는 B의 마지막 발화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에 대해 A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B의 최초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 캐릭터에 관해서는 B의 여섯째 발화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에 대해 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B도 이후에 다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의 다섯째 발화에서 마을을 홍보하는 목표라고 언급하였으며, 축제 홍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B는 일곱째 발화에서 마을 주민 중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음은 언급하였으나 마을의 화합 증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6~10] 작문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에는 “‘도움 오작교’ 제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다는 ‘오작교’라는 이름에서 착안하였음”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초고 1문단에서 “이에 교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학생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와 같이 진술하였으므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글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는 학생의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었다. ③ 학생의 초고 2문단을 살펴보면 학생회는 ‘도와줄게요’와 ‘도와줘요’ 게시판에 개설해야 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필요한 게시판에 들어가서 목록을 검색하고 주고받을 도움을 찾아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ㄷ의 ‘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과 참여하는 학생이 할 일을 각각 제시’한다는 학생의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었다. ④ 학생의 초고 3문단에서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도와줄 있는 일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함께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ㄹ의 “학생회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학생의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었다. ⑤ 학생의 초고 4문단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을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과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은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7.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도움 오작교’ 제도 시행상의 유의점은 ‘학생들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함께 등록하는 것’인데 이를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로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나)와 (다)를 활용하여 과도한 의무 부여가 참여율을 낮춘다는 내용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여긴다.’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설문 조사나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행으로 이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의 근거로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도움 오작교’ 제도의 기대 효과로 ‘학생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을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과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을 들고 있으므로, (다)를 활용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신문 기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도움을 주려는 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웃 학교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에 ‘도움 오작교’제도가 도입되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8.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교사의 조언은 ‘첫째,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둘째, 주장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자.’로 요약할 수 있다. 작문 상황인 글의 목적과 글의 독자를 고려할 때 ‘학생회는 ‘도움 오작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자의 제안 내용으로 적절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는 작문 상황 중 글의 독자인 ‘학생회 간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② 학생회가 ‘제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학생회에 대한 필자의 제안 내용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의미 있는 삶을 누리 수 있게 된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전망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회가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을 권장하여 ‘도움 오작교’ 제도의 연결 횟수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필자가 제안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필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필자는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학생회 간부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글쓴이는 ‘비와 약속’에 대한 자신의 양면적 태도를 책에서 읽었던 ‘긍정적 농부와 부정적 농부’의 일화(逸話: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③에서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깨달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긍정적 마음이 글쓴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것의 사회적 의의가 제시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② 긍정적 마음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언급되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장점에 대해 언급되었지만 그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④ 긍정적인 마음이 글쓴이의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언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글쓴이의 과거 경험에 대해 동생이 지적하였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 ⑤ 긍정적 마음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가치는 언급하였지만 그것을 실용적 가치라 말하기 어려우며, 행동의 실천을 다짐하였지만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10.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평소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

의 거름’, ‘활력의 나무를 키운다.’고 표현한 것은 핵심 내용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비가 내려 꽃을 피우는 상황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를 ‘용서’와 연관 짓는 것은 핵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③ 글의 내용에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제시되고 있지만 ‘공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핵심 내용이 ‘우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⑤ 긍정적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이 ‘이웃과 소통하는 삶’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구개음화와 관련되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구개음화의 형태론적 조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사, 접미사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의 ‘술이나’는 명사 ‘술’에 접속 조사 ‘이나’가 결합된 경우로, ‘술이나’를 [소치나]로 발음하는 것은 ㉠에 따른 결과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같이’의 ‘-이’는 조사가 아니라 어근 ‘갈-’에 결합되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③ ‘팔이다’의 ‘이-’는 접미사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따라서 ‘팔이다’를 [파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④ ‘받히다’의 ‘-히-’는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받히다’를 [바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이 아닌 ㉢에 따른 결과이다. ⑤ ‘붙이다’는 ‘붙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에서는 접미사 ‘-히-’가 결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다’를 [부치다]로 발음하는 것을 ㉢에 따른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규정은 ㉡이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흔히 잘못 쓰기 쉬운 ‘오’, ‘요’의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의 ‘아니요’는 ‘아니오’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오’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한 규정 ㉡을 ㉠의 올바른 표기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짚지은 ㉠이 정답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가지요’의 ‘요’는 종결 어미 ‘-지’ 뒤에 덧붙은 보조사이다. ‘요’가 보조사임은 이를 뺀 ‘영화 구경 가지.’가 성립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의 표기를 규정한 것은 ㉢이다. ㉢ ‘설탕이요’의 ‘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며, ‘이-’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이다. ⑥의 설명을 볼 때 ‘이요’로 적어야 한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특정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일련의 절차로 제시한 후 이를 다른 서술어에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다소 복잡하게 문항이 구현되어 있지만 <보기>에서도 설명하듯이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보기>에서 ‘지내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제시한 것은 결국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를 추출한 것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①로, 제시된 두 예문에서 ‘산으로, 가죽으로’는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며, 이때 ‘되다’는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되다’의 문형 정보를 【…으로】로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참고로, ‘여기 머물게 되다’의 ‘되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의 의미를 지니며, ‘머물게’가 필수적 부사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되다’의 문형 정보로는 【-게】가 추출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넘어가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속임수에’, ‘피에’이기 때문에 【…에/에게】를 ‘넘어가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③ ‘옷 때문에, 한밤중에’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다투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에】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언니와’, ‘누군가와’이기 때문에 【…와/과】를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 환자의 생명은 분초를 다투다’에 쓰인 ‘다투다’는 ‘사태가 매우 급하다’의 뜻을 지니며 ‘분초를’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투다’의 문형 정보로는 【…을/를】을 추출할 수 있다. ④ ‘사은품으로, 부록으로’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팔리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팔리다’의 문형 정보로 【…으로】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제시된 두 예문에서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가방에, 그 책에’이기 때문에 【…에/에게】를 ‘팔리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⑤ ‘깨끗하게, 허영게’가 생략되어도 제시된 문장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빠지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게】를 추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때가, 물이’라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옷에서, 청바지에서’이기 때문에 【…에서】를 ‘빠지다’의 문형 정보로 추출해야 한다.

14.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자료>에서 수정 전후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비록 초보자일수록’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로 수정되었고, ‘그러서 작성할 수 있다’가 ‘그러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고쳐졌다. 전자는 ‘비록’이라는 부사어와 연결 어미 ‘-ㄴ지라도’의 정확한 호응을 고려한 결과이고, 후자는 ‘작성하다’의 목적어 ‘문서를’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은 결과이다.

정답 ③

15.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일부 의문문과 청유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으로, 정답은 ⑤이다. ⑤의 ‘어디 보자’는 특정한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발화가 아니며,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B의 발화 ‘거기서 혼자 뭐 해요’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기다리는 행위를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청유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내릴 수 있게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④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문법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에 대한 의미적 이해는 물론 선택지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은 ⑤로, 다섯 가지 욕구[五欲]를 설명하는 각 문장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힐 씨라’가 생략되었음을 감안하면, ‘먹고저’의 ‘-고저’는 종결 어미가 아니라 연결 어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가 ‘먹고자 (하는 것이다)’임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어 풀이에서 ‘먹고자 (하다)’의 ‘-고자’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五欲은’의 현대어 풀이는 ‘오욕은’인데, 이때의 ‘은’은 문장 속에서 어떠한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 책은 재미있다, 오늘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다’ 등의 예문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② 현대어 풀이의 ‘눈에 좋은 빛’은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되었지만 ‘보고자’의 목적어임을 감안하면, ‘누네 도훈 빛’ 역시 ‘보고저’의 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 ③ ‘귀예’의 현대어 풀이는 ‘귀예’인데, 이때의 ‘예’는 앞말이 목표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몸에 좋은 음식, 감기에 잘 듣는 약’ 등의 예문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현대어 풀이의 ‘좋은 빛,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옷’에서의 ‘좋은’이 용언

‘좋다’가 관형사형으로 활용한 형태임을 감안하면, 중세 국어 ‘도흔’ 역시 용언 ‘똥다’의 관형사형임을 알 수 있다.

[17~30] 독서

[17~20] 인문,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과학철학에서 사용되는 설명 이론 중 험펠과 샬먼의 설명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험펠의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논증이다. 이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는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샬먼은 설명은 논증이 아니라 인과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 인과적 설명 이론을 내세웠다. 샬먼의 설명 이론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하지만, 인과 관계가 근원적으로 불명료한 개념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제] 험펠과 샬먼의 설명 이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

17.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샬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밝히며,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샬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결과는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험펠과 달리 샬먼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으며, 그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설명’에 관한 험펠의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

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험펠의 세 번째 조건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며,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띠는데,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1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설명 이론에 인과 개념을 도입하려면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고 연결하는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은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모두 불명료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중 어느 것이 더 불명료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⑤ 4문단에서 쉘먼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험펠은 설명이 논증의 형식을 띠어야 하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이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물음]에 근거할 때 <보기>의 명제들 중 피설명항에 놓여야 할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라는 ‘ㄷ’이다. 그리고 2문단에서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보기>의 명제들 중 보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

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는 ‘ㄹ’이다. 또한 2문단에서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보기>의 명제들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라는 ‘ㄴ’과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라는 ‘ㄱ’이다.

정답 ④

[21~24] 사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 곧 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는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는 과학 혁명으로 인해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과학과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또한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을 중시한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18,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활동적 삶이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을 기계처럼 관리하는 이론까지 만들어졌다. 물론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20세기 말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몰아세우고 있다. 사색적 삶을 잊은 채 활동적 삶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주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

21.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테일러는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다. 그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는데, 이로 인해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색적 삶의 영역을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중시했다. ②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인해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③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⑤ 20세기 초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는 활동적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즉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

성을 역설하기 위한 목소리이다. 사색적 삶은 자극에 예민한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과 관계가 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계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② 일하기 위한 삶을 중시하는 서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④ ‘나태’는 여유로운 삶과 관련이 있으며, 나태가 사람을 녹슬게 한다는 생각은 활동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⑤ 인간을 사색하지 못하는 기계라고 여기는 진술이며,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0세기 후반 이후 ‘후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성과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사회인 규율 사회가 후근대 사회인 성과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규율 사회에서는 이 요구가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을 뿐이다. 즉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만 달라졌던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근대 사회에서는 기계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을 확립했는데, 이런 노동 규율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의 외적 강제에 해당한다.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자기 착취를 함으로써 결국 피로라는 만성 질환을 앓게 한다. ④ 기술 발달이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담고 있지만,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을 위해 자기 착취를 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이다.

2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포섭(包攝)’은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м.’의 의미로, 이 말에는 ‘너그러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는 ‘포용(包容)’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추구(追求)’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다. ② ‘검약(儉約)’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이다. ③ ‘응용(應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이다. ④ ‘모색(摸索)’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다.

[25~26] 과학,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지문해설 : 이 글은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항암제 중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역할

을 하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의 분열까지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반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 표적 항암제는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암세포 증식 단계와 종양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 증식 단계에,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작용한다. 암세포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존재하는데 신호 전달 억제제는 그 전달 경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신호 전달 경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암세포가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신생 혈관 억제제는 그 공급의 통로인 혈관의 생성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생 혈관 억제제는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주제]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와 특징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데, ㉠은 혈관내피 성장인자에 작용하여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은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효소에 작용하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이마티닙’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이지만, ㉡‘파클리탁셀’은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이다. ② ㉡‘파클리탁셀’은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또한 ㉢‘베바시주맙’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을 방해하여 새로운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 ㉢ 모두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마티닙’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에 작용하여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지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베바시주맙’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돌연변이 유전자와는 상관없다. ④ 3문단에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가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만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을 보면 오히려 ㉢‘베바시주맙’이 여러 종류의 암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보기>의 암세포는 시험관 속의 액체 속에서 세포 분열을 한 후 작은 암 덩이로 자라고, 그 뒤에 증식하지 않았다. 반면 실험동물의 체내에 들어간 암세포는 증식을 거쳐 종양으로 자라났다. 이는 시험관은 종양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고, 동물의 체내는 종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관 액체 속의 암세포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함께 넣는다 하여도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자라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Bcr-Abl 단백질은 만성골수백혈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암세포가 특정되지 않은 <보기>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물에게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자랐지만, 동일한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에 넣었을 때 종양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시험관 속의 액체가 종양이 자라는 데 영향을 주는 혈관 생성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 모두에게 암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입된 암세포에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④ 자라난 종양의 일부 조직 속에 혈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⑤ 2문단에서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과다한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입된 암세포가 커다란 종양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포 증식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7~30] 예술, '회화주의 사진'

지문해설 : 이 글은 단순히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사진의 위상을 회화와 같은 예술성을 갖춘 위치로 끌어올리려 했던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창작 과정과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 그리고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를 통해 스타이컨이 작품으로 내놓은 사진에 담긴 다양한 기법 속에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한 그의 노력이 녹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회화주의 사진을 추구했던 스타이컨의 노력

2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대리석상인 <빅토르 위고>는 로댕의 작품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를 피사체로 삼았을 뿐 빅토르 위고가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회화주의 사진은 현실 재현의 수단이 아니라 사진작가가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스타이컨의 사진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으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로맹과 스타이컨이 조각의 역할을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없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의 작품은 밝은 원경과 어두운 근경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인화 과정에서의 처리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스타이컨은 로맹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근경의 사진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이 아니며, 원경의 대상인 <빅토르 위고>만 따로 촬영한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맹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로맹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로맹의 작품이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한 것은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해서이다.

29.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작품은 로맹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은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주고자 한 스타이컨의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사진에서 원경에서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에서 벗어나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한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하였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맹>이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신계영, ‘전원사시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제1수, 제2수),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의 모습(제3수, 제4수), 가을을 맞아 흥을 즐기는 모습(제5수, 제6수), 눈이 쌓인 겨울의 모습(제7수, 제8수), 한 해를 보내며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제9수, 제10수) 등을 노래하고 있다. 전원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그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을 춘하추동의 순서로 노래한 후(제1수~제8수), ‘제석(除夕, 한 해의 마지막 밤)’ 부분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그에 따른 늙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함으로써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제9수, 제10수)

[주제] 전원에서의 유유자적한 삶

3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6수에서 화자는 중앙절을 맞이하여 올벼로 빚은 술이 다 익었는지를 묻고, (다 익었으면) 맛있는 안줏감을 준비하도록 아이에게 이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에서는 ‘자해(꽃게)’, ‘황계(털빛이 누런 닭)’ 등 미각을 돋우는 소재를 제시하여 가을을 맞이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지바른 언덕의 풀빛은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의 세계이며, 초월적인 세계는 아니다. ② ㉠에서 꽃이 진 후의 녹음이 깊어가는 것은 화자가 인식한 계절적 풍경이며,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제6수에서는 계절적으로 녹음이 짙어가고, 대낮의 고요한 마을에 닭이 울고 있다. 종장인 ㉠에서 화자가 아이에게 노래(계면조)를 불러 긴 졸음을 깨우도록 이르는 것은 전원에서의 한가로움을 표현한 것이며,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⑤ ㉠에서는 겨울의 저녁 시간, 즉 긴 밤과 저녁 식사(콩죽 또는 팔죽)를 앞둔 때를 표현하고 있으며,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세월이 젊음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새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화자 역시 새해를 즐겨 했던 젊은 날이 있었으나, ‘현재’의 화자는 늙음을 한탄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아히들(아이들)’에게도 새해가 오는 것을 즐거워 말도록 훈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늘그니(노인)’가 다른 ‘늘그니’를 만나 반갑고 즐거워하고 있으므로, 같은 처지의 상대방을 만난 기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는 화자와 같은 처지의 대상을 만난 반가움이 제시되었을 뿐, 젊음과 늙음이 대조되지 않았다. ② [A]의 화자는 (특히 ‘이 백발이 되얏노라’에서) 자신의 ‘백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보기>에는 세월의 빠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세월의 빠름을 빗댄 구체물도 제시되지 않았다. ⑤ [A]에서는 화자도 ‘아히들’처럼 새해를 즐겨하였으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는 현재 삶의 행복감이 나타나 있으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의 각 연에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계절적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자도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흥을 즐기고 있다. 작품의 각 연에서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제2수>에는 봄이, <제3수>에는 여름이, <제6수>에는 가을이, <제7수>에는 겨울이 제시되어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② 앞의 네 수 모두의 종장에서 ‘아히야’가 등장함으로써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되고 있다. ③ 계절을 다룬 앞의 네 수에서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된 다음, 주로 ‘아히야’로 시작되는 화자의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④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올벼로 빗은 술을 찾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이자 일상의 풍경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4~38] 장르 복합 - (가) 신석정, ‘꽃덤불’ / (나) 전봉건, ‘사랑’ / (다) 한흑구, ‘보리’

지문해설 : (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졌던 삶의 다양한 태도와 모습을 성찰해 보고 있다. 이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고뇌가 잘 드러난다. 이 시의 제목인 ‘꽃덤불’은 우리가 새롭게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 국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더 나은 세계(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
 (나)는 제목 ‘사랑’과 더불어 ‘사랑한다는 것은’을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함으로써 시의 화자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과묵을 가꾸는 행위에 빗대어 사랑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은 저절로 아름답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과 맞서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연은 주로 사랑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고 3연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 지켜보는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보살핌과 지켜봄의 의미를 통해 바라본 사랑
 (다)는 보리를 ‘너’라고 부르면서 보리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추운 겨울과 싸우기 위해 땅 속에서 굶하지 않는 의지로 견뎌내던 보리가 따뜻한 봄이 오자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리를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시련을 통한 성숙의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성실한 농부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예찬하고 있다.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예찬

34. 작품 간의 공통점

정답해설 : (가)의 ‘혈어진 성터’, (나)의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다)의 ‘어둡고 차디찬 눈 밑’ 등의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화자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다)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색채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 만한 대상이 없다.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대상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화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항상’은 ‘거룩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②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④ ‘아무리’는 적대적인 것들이 화자의 사랑을 위협해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에 가깝다. ⑤ ‘이미’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가)의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벋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위협적인 대상에게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혈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④ ‘밤’은 부정적 상황이므로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꽃덤불’과 ‘새 과목’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3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사랑의 의미’라는 (나)의 주제로 볼 때 ㉠은 1행으로 이루어져 1연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와 단서로 기능하고 있고, 첫 연과 끝 연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다룬 내용을 찾기 어렵다. ③ ㉠에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고, ㉠은 비교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 않다. ④ ㉠과 ㉡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다. ⑤ ㉠과 ㉡ 모두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과 무관하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은 ‘온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②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③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보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노고지리들이 보리에 보금 자리를 틀어 놓는 것과 연결되므로 보리와 다른 자연물들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39~41] 현대소설 - 오정희, ‘옛우물’

지문해설 : 1994년 문예중앙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지방 도시에 사는 마흔다섯의 중년 주부가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작품의 제재가 되는 ‘옛우물’은 출생한 아이를 씻기기 위한 물을 제공하는, 상상 속 금빛 잉어가 사는 신성하고 신화화된 생명의 공간인 동시에, 동네 염쟁이의 딸 정옥이가 빠져 죽은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작가는 ‘옛우물’의 이런 상징성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것임을 감각적이고 섬세한 문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주제] 삶(생명)과 죽음, 인간의 정체성 등에 대한 성찰

3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은 1인칭 주인공인 ‘나’가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한 것과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고백적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아이를 낳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애에 있어 사십오 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대해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중략’ 아래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인물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 진술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중략’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의문과 추측의 진술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신의 삶이 가질 수 있었던 가정적 가능성을 진술한 것이므로, 이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중략’ 윗부분에서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무관하다.

4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도도’가 언급된 아래 부분을 보면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여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를 인간의 모습과 연관 짓고 있고, 다음 부분에서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인공의 아들이 멸종된 종인 ‘도도’를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도도’에 대한 연상이 주인공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도도’를 주인공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주인공은 아들이 ‘도도’에 대해 설명해주기 전에는 ‘도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고, 주인공이 진화의 표본에 대한 언급한 것 역시 ‘도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삶의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제시된 글만으로는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주인공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한 것은 티브이 뉴스의 영향이 크고, ‘도도’ 역시 그 연상에 개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앞뒤 맥락에서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한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도도’를 통해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도도’가 관습과 제도에 희생된 존재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도’는 관습과 제도에 억압된 존재이지 관습과 제도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는 외에 가끔 밤 외출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가 아닌 일상적 세계의 범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이 되어, 다시 산하에 분분히 내린다고 진술하는 것을 통해 주인공이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이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성찰한다고 했고, 윗글의 첫 부분에서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 할머니의 정성스런 행동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공은 출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 탐색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떠올린 아프리카나 광야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윗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은 경계인으로서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2~45]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조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쟁탈이나 외부 적과의 전쟁으로 채워져 있지만, 내용의 중심은 화진의 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가문 내부의 질서 확립이 작품의 중심이 되며, 부차적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 배경을 차용하면서도 기존의 역사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사회의 문제를 자유롭게 그리면서 실존인물까지 적절히 배치해 허구적 내용에 실감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내용에 반영된 주제가 전통적 관념을 고수하여 참신성이 약하지만 구성이 치밀하고 전개가 매끄러워 우리나라 고소설 가운데 우수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가문의 화목과 국가의 안정

4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진 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가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시된 것으로 볼 때, 진 소저의 혼인 여부는 진 공과 오 부인이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부모가 떠난 후 진 소저가 수십 일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성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조문화의 아들은 결혼을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③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의 행방을 묻자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모른다고 대답했다.

43.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조문화는 [A]에서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족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등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오 낭중에게 전하고 있다. 오 부인은 [B]에서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라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조문화는 자신의 권세에 의거하여 오 낭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B]에서 오 부인은 딸(진 소저)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고 있다. [A]에서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에서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아니다. ② [A]에서 조문화는 지난 일을 들어 진형수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지 청자인 오 낭중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B]에서 오 부인은 청자인 딸에 대해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조문화는 오 낭중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 소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딸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다. ⑤ [A]와 [B]에서 화자가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44.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오 낭중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권력자인 조문화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가 올바른 사리 판별을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문화는 자신의 청혼을 진형수가 거절하자 그를 무고하여 옥에 가둔 후 나중에 귀양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농단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진 소저는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룬 후 병을 가장해 조문화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 후에 부모가 멀리 이동했을 시점에 행장을 꾸리고 남장을 하여 회남으로 떠나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청혼을 거절한 것이 진형수 가문에 위기로 닥치는 상황을 통해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을 통해 주변 인물인 유모가 적극적 인물인 진 소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은 부친이 중죄를 받을 상황에서 딸인 자신이 욕됨과 그렇지 않음을 가릴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㉒가 어려운 형편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정답 ㉒**

[오답피하기] ㉑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당장에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인데, ㉑과는 관련이 없다. ㉓ 진 소저가 혼인을 허락한 것은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의도이지,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다. ㉔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는 훌륭한 인물에게서 훌륭한 자손이 난다는 말로, ㉔과는 관련이 없다. ㉕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㉕은 진 소저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